

# 평평한 세계에서의 생존전략 : 토마스 프리드만의 “세계는 평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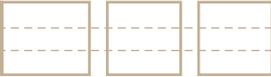
The World Is Flat :  
The Brief History of the Twenty First Century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아마 세계화란 말처럼 자주 듣기는 하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한 말도 드물 것이다. 세계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세계화는 왜 발생하였는가? 세계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의 <세계는 평평하다> (원제 : The World is Flat ; 2005, 2006, 2007 개정증보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관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주는 책이다.

토마스 프리드만은 풀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1999)를 통해 세계화의 문제를 다루었던 그는 이 책에서 동일한 주제를 더욱더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기업가, 정치인, NGO리더, 근로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칼럼니스트 특유의 명료한 필체로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의 적절한 예가 100개의 이론보다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저절로 실감하게 된다. 이론적 엄밀성을 논외로 한다면, 이





책은 지난 15년간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준다.

## ■ 평평해진 세계

프리드만은 세계경제의 활동 공간의 장벽이 제거되어 평평(flat)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일자리와 고객을 위해 경쟁할 더 큰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0년 간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10가지의 동력을 열거한다. 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자본주의의 승리와 냉정시대 분할의 종말에 따른 단일한 세계시장의 형성 ② 네스케이프 인터넷 브라우저(Nescape Internet browser)의 발명-전세계적인 정보공유의 급격한 증가 ③ Outlook 이나 Ebay 같은 워크플로(work flow) 소프트웨어의 출현-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공동작업과 교역 증가 ④ Linux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정보공유의 문화형성과 정보비용의 감소 ⑤ 전지구적인 아웃소싱(outsourcing) ⑥ 오프쇼어링(off-shoring) -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을 보장하고 저개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공장의 해외이전 ⑦ 공급사슬(supply chaining) -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한 배송추적, 재고관리와 간소화된 상품분배 ⑧ 인소싱(insourcing) - 특화된 작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업간 근로자의 파견 ⑨ Yahoo!나 Google과 같은 강력한 검색엔진 ⑩ 무선통신의 출현- 개인의 신기술 활용의 접근성과 유연성 증대.

프리드만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새로운 동력이 서로 합쳐지고 힘을 발휘하면서 새롭고 평평한 세계적인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활동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세계의 기업과 개인들은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관행, 기술과 과정을 수용하고 있다. 가치창출을 위한 방법도 대규모의 수직적인 방법에서 보다 수평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평평해지는 과정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새로운 근로자 집단이 중국, 인도와 구소련과 동구권으로부터 새로운 활동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책의 기본 주제는 새로운 기술, 특히 IT기술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고 있으며, 오늘날 특정 국가의 근로자와 기업은 세계 각지의 근로자와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 특정 국가의 근로자간 그리고 기업간 전세계적 경쟁은 더욱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아마 2007년도판 137쪽에 나와 있는 인용문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드만은 중국 북경의 한 공장에 걸려 있는 중국어로 번역된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매일 아침 가젤은 잠에서 깨어난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도 잠에서 깨어난다.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굶어죽는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사자인지 가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해가 뜨면, 당신은 뛰어야 한다.

프리드만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더 빨리' 달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변화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또한 직접적이다.

## ■ 평평한 세계에서 국가 생존전략

급속한 기술변화와 세계화의 환경에 대처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리드만은 세계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기업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HRM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세계화된 세계에서의 개인의 성공전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사실 프리드만의 명쾌함은 후술하는 국가적 차원의 생존전략보다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서는 프리드만이 언급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존전략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리카르도는 옳다.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공급사슬의 이전 등에 장벽을 세우지 말아야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 가치창출 메커니즘이 전지구적인 수평적 협력에 의존하는 시기에 장벽을 세우는 것

은 이윤획득 기회의 상실과 삶의 질의 후퇴를 결과할 수 밖에 없다. 자유무역의 결과 때때로 특정부문에서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도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가 영속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노동총량이론(the lump of labor theory)은 경제적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기업의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일자리, 특히 전문직 일자리가 증가한다.

### 경쟁력 있는 개인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산업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계화로 이어진다. 개인은 세계적 공급사슬의 일부분으로 통합되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개인이란 ‘그의 일을 자동화, 디지털화, 아웃소싱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전문화된(specialized) 근로자이다. 전문화된 다양한 지식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 회계사, 의사에서부터 최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최신 기계장치나 로봇설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이들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며 또 쉽게 대체할 수 없다. 둘째는 지역화된(localized) 근로자이다. 이들의 일자리는 전문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특수적 지식(specific local knowledge)을 기반으로 상품구매자와의 긴밀한 대면적 접촉을 통해 인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는 일자리이다. 이러한 근로자는 나의 단골이발사, 단골식당의 요리사, 많은 개업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전기수리공,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일들은 대개 디지털화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하지도 않다. 이들의 임금은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중위 일자리(old middle job)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공장의 조립라인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나 기초 수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다. 과거에 이들의 일자리는 대체할 수 없고 국제적 교역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점점 더 강도 높은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세계화의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받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전통적인 중간 일자리의 국제적 대체가 발생하면 그 국가는 중간층이 두터운 종 모양(bell shape)의 경제에서 역기 모양의 경제(barbell economy)로 전환되기 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조세나 재정을 통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자동화나 기술변화에 따른 임금하락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일자리(new middle job)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러한 일자리가 요구하는 특정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아홉 개의 새로운 중간 일자리들을 유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프리드만이 새로운 중간 일자리들이 주로 만들어질 기초과학 분야나 이공계를 전공하는 미국 대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 경제의 근육을 강화하되 좋은 지방질은 유지해야 한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방질에도 좋은 지방질(good fat)과 나쁜 지방질(bad fat)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에게나 약간의 지방질은 필요하다. 이는 평평한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게도 타당한 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좋은 지방질이다. 우리는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복지제도는 나쁜 지방질이다(391쪽).”

과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던 사회안전망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평평한 세계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종신고용(lifetime employment)은 평평한 세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회안전망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모두 근로자의 종신고용 가능성(lifetime employability)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종신고용은 지방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종신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이 지방질을 근육으로 바꾸어야 가능하다. 평평한 세계에서는 근로자 각자가 자신의 경력, 위협,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은 근로자들이 그럴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근육은 이동가능한(portable) 사회보장과 평생학습의 기회이다. 이 두 가지는 근로자가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만드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가변성과 노동법의 유연성은 평평한 세계에서의 중요한 자산이



며, 이것은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가속화하여 더욱 빨라질 평평한 세계에서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세계화의 시대에는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평평한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생겨야 하는 좋은 지방질도 있다. 프리드만은 그 예로 임금보험(wage insurance)을 들고 있다. 임금보험이라는 아이디어는 원래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Robert Lawrence) 교수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탄(Robert Litan)이 <Saving Free Trade>(1986)에서 제안한 것이다. 임금보험은 세계화의 결과 특정 직종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갑자기 낮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실 임금의 일정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임금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근로자가 오프쇼어링, 다운사이징, 또는 공장폐쇄로 직장을 잃은 경우라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그 직장에 최소한 2년을 다녀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새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임금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가 하루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도록 촉구하고, 재직시 직장에서 재훈련받는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 2년 동안 50%를 보상받는다. 또한 실직시 6개월 동안은 임금보험에서 의료보험료가 지불된다. 이러한 임금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좋은 지방질의 기능을 할 것이다.

## ■ 결 론

‘세계는 평평하다’의 2005, 2006, 2007 세 판을 모두 즐겨 읽었다. 현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기존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책이다. 내부의 벽을 허물어야 하지만 외부의 벽은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외부의 벽만 허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sup>1)</sup> **KLI**

1) 주의 : 이 책은 경제학자가 쓴 책이 아니다. 이론적 분석이 아닌 적절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 이 책의 장점이다. 세계화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학적 접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는 Jagdish Bhagwati교수의 <In Defence of Globalization>(2005)을 권하고 싶다.